



예거 르쿨트르의 새로운 타임피스, 그린 컬러의 리베르소 트리뷰트 스몰 세컨즈

1931년 리베르소가 제작되었을 때, 매뉴팩처는 곧 그 디자인이 원래 사용될 예정이었던 스포츠 경기장을 넘어서는 폭넓은 매력을 지녔음을 알아보았고, 첫 해에 오리지널 블랙 다이얼의 다채로운 변형 모델을 선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초콜렛 브라운, 레드, 버건디 또는 블루 컬러의 래커 다이얼은 메탈 케이스와 선명하고 스타일리시한 대비를 만들어냈으며, 워치메이킹 분야에서 컬러 다이얼이 드물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리베르소가 더욱 현대적이고 독특하게 여겨졌습니다.

수십 년 동안 리베르소는 오리지널 디자인의 탁월함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다양한 다이얼과 케이스 사이즈로 출시되었으며 2016년, 예거 르쿨트르는 1931년에 탄생한 오리지널 모델의 스타일 코드로 돌아와 트리뷰트 모델 시리즈를 제작했습니다.

2021년, 리베르소에 특별함을 선사했던 초기 컬러 사용을 떠올린 그랑 메종은 그린 컬러의 **리베르소 트리뷰트 스몰 세컨즈**를 선보입니다. 선레이 브러싱 래커 다이얼과 그에 어울리는 가죽 스트랩의 풍부한 톤은 발레 드 주(Vallée de Joux)에 위치한 예거 르쿨트르의 보금자리를 둘러싸고 있는 소나무 숲의 짙은 녹색을 연상시킵니다.

다이얼은 리베르소 트리뷰트의 시그니처 디자인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시간은 숫자가 아닌 애플리케이션 인덱스로 표시되며 각면 처리한 형태는 래커 처리된 표면에 시각적 깊이를 더하고, 도피네 핸즈와 조화롭게 어우러집니다. 다이얼 하단에 자리한 스몰 세컨즈 디스플레이의 원형 트랙은 다이얼



및 케이스의 기하학적 라인과 선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케이스를 뒤집으면 보이는 크래들 내부 표면에 선레이 패턴이 다이얼의 선레이 브러싱과 조화를 이룹니다.

리베르소의 전통을 계승하는 회전 케이스의 견고한 메탈 뒷면은 모티프 또는 인그레이빙으로 개인 맞춤 제작할 수 있는 이상적인 공간이 되어줍니다. 취향에 따라, 맞춤 제작한 부분을 숨기거나 케이스를 뒤집어 뒷면이 앞에 오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슬림한 8.5mm 케이스에는 매뉴얼 와인딩 기계식 예거 르쿨트르 칼리버 822/2 가 탑재되었습니다. 리베르소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직사각형의 스몰 세컨즈 무브먼트는 42 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합니다.

리베르소와 함께 폴로 스포츠의 전통을 이어가고자 예거 르쿨트르는 2011 년 까사 파글리아노(Casa Fagliano)와 협업을 시작했습니다. 수제 부츠로 폴로 세계에서 명성을 얻은 파글리아노는 특별한 리베르소 시리즈를 위한 스트랩을 제작했습니다. 트리뷰트 컬렉션의 편안하고 현대적인 매력을 유지하기 위해, 파글리아노의 시그니처 디자인으로 제작된 새로운 리베르소 트리뷰트 스몰 세컨즈의 송아지 가죽 스트랩은 다이얼과 같은 그린으로 출시되어, 통일된 실루엣으로 리베르소 디자인의 시대를 초월한 아름다움을 강조합니다.

기술 사양

리베르소 트리뷰트 스몰 세컨즈

케이스 소재: 스틸

케이스 크기: 45.6 x 27.4 mm

두께: 8.5mm

무브먼트: 매뉴얼 와인딩 예거 르쿨트르 칼리버 822/2

기능: 시, 분, 스몰 세컨즈

파워 리저브: 42 시간



방수: 30m

케이스백: 밀폐형

스트랩: 그린 송아지 가죽

제품 번호: Q3978430

리베르소 소개

1931년, 예거 르쿨트르는 20세기의 클래식 디자인이 된 타임피스인 리베르소를 출시했습니다. 격렬한 폴로 경기를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된 시계는 아르데코 라인과 독특한 회전 케이스의 디자인으로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아이콘 모델이 되었습니다. 90년이 흐르는 동안 정체성을 고스란히 간직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모습을 선보인 리베르소는 50개 이상의 다양한 칼리버가 탑재되었으며, 메탈 소재의 빈 다이얼 뒷면은 에나멜링과 인그레이빙 또는 젤스톤으로 장식할 수 있어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캔버스가 되어 주었습니다. 오늘날, 탄생 90주년을 맞이하는 리베르소는 현대적인 스타일에 영감을 얻어 계속해서 새로운 모델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jaeger-lecoultre.com